

키르기즈스탄 잘랄아바드 지역의 현황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잘랄아바드 시(Jalal-abad City)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9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9기 훈련팀에서 2009년 6월 30일 ~ 2009년 7월 24일까지 키르기즈스탄의 잘랄아바드 주의 잘랄아바드 시를 중심으로 잘랄아바드 및 페르가나 계곡 지역의 복음화 가능성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잘랄아바드 지역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교육분야
8. 종교분야
9. 기독교 상황

IV. 키르기즈스탄 잘랄아바드 지역의 현재 이슈들

V. 잘랄아바드 지역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잘랄아바드 지역 선교의 방해요소
3. 잘랄아바드 지역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선교전략 제언

VI.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1) 지역의 중요성

키르기즈스탄(Kyrgyzstan)은 중국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는 복음의 서진 운동과 중동으로부터 이동해오는 이슬람의 동진 운동이 충돌하는 국가로서 이 시대 마지막 선교 사명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선교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² 키르기즈스탄은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동남쪽으로 타지키스탄(Tajikistan),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경제적으로 키르기즈스탄 외 여러 도시들은 예부터 실크로드(Silk Road)의 거점 도시들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변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왕래하고 유통하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즈스탄이 복음화되었을 때에 주변 종족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성지화하려는 터키와 아랍 국가의 강한 이슬람 세력이 키르기즈스탄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서쪽지대인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은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 걸쳐진 지역이다. 세 국가의 국경선은 소련의 붕괴를 전후로 하여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그재그로 설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페르가나 계곡 지역은 영토 및 민족 분쟁의 터전이 되고 말았다. 분쟁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페르가나 계곡은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답게 주변지역과의 활발한 무역교류는 물론 비옥한 토지를 통한 풍부한 작물 경작이 이루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슬람은 페르가나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이슬람의 세력확장을 위해 거점도시들을 차지하려고 한다.

키르기즈스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잘랄아바드 주(Jalal-abad State)³는 페르가나 계곡에 접하고 있다. 특히 이 주의 대표도시인 잘랄아바드 시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잘랄아바드 지역의 이슬람 세력은 북부에 위치한 수도 비슈케크(Bishkek)의 이슬람 세력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비슈케크나 오쉬(Osh) 지역에 사역자가 집중되어 있고, 잘랄아바드 시에는 현재 장기사역자가 거의 없으며 선교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이다.

²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1호(2009년 봄), p. 362

³ 잘랄아바드 주는 잘랄아바드 오블라스트와 동의어이다.

2) 리서치 필요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학술적, 선교적 지역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적었던 키르기즈스탄 역시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전략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잘랄아바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제안하여 선교자원들을 동원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 1) 키르기즈스탄의 국경 근방 페르가나 계곡 부근의 잘랄아바드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그 지역이 가지는 위치적 중요성에 대해 파악한다.
- 2) 페르가나 계곡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잘랄아바드 지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선교전략을 도출한다.
- 3) 잘랄아바드 지역의 조사를 통하여 잘랄아바드와 페르가나 계곡 부근 지역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한 선교자원을 동원한다.

3. 조사지역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남부 잘랄아바드 주(Jalal-abad State) 잘랄아바드 시(Jalal-abad City)

4. 현장조사기간: 2009년 6월 30일 ~ 2009년 7월 24일⁴

⁴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 팀은 2009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6/30- 2009/07/02	비쉬켄 시	장기사역자	관찰 조사
2009/07/02- 2009/07/07	오쉬 시	지역 주민, 장기사역자, 대학생	인터뷰, 관찰조사
2009/07/08- 2009/07/22	잘랄아바드 시	지역 주민, 관공서 직원, 현지 목회자	관찰조사, 인터뷰, 문헌조사
2009/07/23- 2009/07/24	비쉬켄 시	장기사역자	관찰조사

5.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팀⁵ 4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오미숙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08)	디렉터, 문서자료부장
2	김자영	생명과학부(08)	총무부장
3	이은지	글로벌리더십학부(09)	예배부장
4	모휘정	글로벌리더십학부(09)	미디어부장

2) 통역자 및 현지가이드 3명

	이름	소 속	역 할
1	오쉬 B 선교사	A 소속	오쉬 시와 페르가나 지역간의 및 통역자 연결
2	오쉬 A 선교사	A 소속	현지가이드 및 통역
3	통역자 L	없음	현지가이드 및 통역

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훈련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리서치전문가과정(Research Expert Course)과 리서치단기선교사과정(Research Missionary Training Course)이 있다.

6.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네이버, www.naver.com

② 문헌 조사

최한우, 『중앙아시아지역연구(상), (하)』 (펴내기, 1992)

김선호,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지중해지역연구』, 제 3집 (2001)

국제지역연구소, “키르기즈스탄 오쉬지역의 현황 및 지역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키르기즈스탄 비쉬켈 시

키르기즈스탄 오쉬 시

키르기즈스탄 잘랄아바드 시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오쉬: 다수의 오쉬 선교사

잘랄아바드 시: 현지 목회자, 잘랄아바드 시 시장, 시청 통계분야 공무원, 경찰관, 병원 원장, 의사, 교장, 대학 총장, 교수, 은행 지사장, 이맘, 이슬람 신학생, 법조인, 검찰관

② 일반인

오쉬 시내의 대학생

잘랄아바드 시의 지역 주민, 시장 상인들, 이슬람 신자들

(3) 문헌 조사

이호령, “중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함의”, (2002)

최한우, “중아시아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연구보고서』, 제5권 제 1호, (2001)

7.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은 14일의 일정 동안 잘랄아바드 시에서 공공기관 및 현지 교회를 다니며 인터뷰와 관찰조사를 통해 잘랄아바드 시에 대한 현황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 조사를 진행하였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전략을 담아내기 위해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팀원들의 지속적인 회의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잘랄아바드 시 역시 선교적인 돌파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스탄의 타지역에 비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선교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선교계에 잘랄아바드 시의 총체적인 정보를 알려 사역자와 중보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조사의 의의를 가진다.

조사의 한계점은 처음 잘랄아바드 시를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페르가나 계곡의 영적 상황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잘랄아바드 시의 지역연구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통역자와 팀원들의 언어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허위성 대응으로 정보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팀은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중아시아 및 키르기즈스탄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II. 들어가는 말

중앙아시아는 기독교 복음의 서진 운동과 이슬람의 동진 운동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로, 이 시대 마지막 선교사명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⁶ 중 키르기즈스탄(Kyrgyzstan)은 1991년 구 소련 정부로부터 독립하였다. 키르기즈스탄의 종족집단은 유목민족으로 전체 종족보다는 종족 내에서도 한 씨족 사이의 연대감이 강하다. 또한, 동일한 종족 내에서도 같은 씨족이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상대라고 여겼기 때문에 종족 연대감이 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독립 직전과 독립 당시, 그리고 독립 후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들과 엘리트 집단들은 키르기즈스탄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요소와 이슬람을 결합하여 종족 정체성과 연결했고, 이것을 곧 애국심과 연관 지었다. 따라서 키르기즈스탄의 이슬람은 정통 이슬람과 달리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하다.

2009년 1월, 종교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종교의 측면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였다. 하지만, 중동 권의 압박과 키르기즈스탄 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기독교 이단들의 지나친 활동으로 종교법이 개정되어 복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으로부터 강한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키르기즈스탄을 이슬람화하려는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남부 지역인 잘랄아바드 시의 이슬람은 북부 지역의 이슬람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게다가 종교법 시행이 강해짐에 따라 남부 지역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 사역하는 사역자의 수도 무척 적으며, 정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인 목회자들과 긴밀한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랄아바드는 선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의 사각지대’이다. 본 조사팀은 잘랄아바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의 총체적인 정보를 연구하여 이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⁶ 본 조사팀은 중앙아시아를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으로 구분한다.

Ⅲ. 잘랄아바드 지역의 현황

1. 일반개요

1) 키르기즈스탄 개관⁷⁾

키르기즈스탄의 정식 국가 명은 키르기즈스탄 공화국(Kyrgyz Republic)이다. 수도는 국가 북부 끝에 있는 비쉬켄(Bishkek)이다. 국토의 면적은 198,500 km²이며⁸⁾, 80% 이상이 해발 1,500 m 이상의 산지를 이루는데, 높은 산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높은 산지가 많은 만큼 농지는 전 국토의 7% 밖에 되지 않는다.⁹⁾

키르기즈스탄은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동쪽과 남쪽으로 중국과 타지키스탄(Tajikistan),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키르기즈스탄의 인구는 5,356,869명이며¹⁰⁾, 45개의 종족이¹¹⁾ 거주하고 있다. 종족비율은 키르기즈족이 52.4%, 러시아인 18%, 우즈베크족이 12.9%, 독일인이 2.4%의, 기타 종족이 11.8%를 이룬다.¹²⁾ 이들의 공용어는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인데 최근 들어 키르기즈어를 공식어로 지정함에 따라 공식 문서나 거리의 간판들이 러시아어에서 키르기즈어로 바뀌고 있다.¹³⁾ 또한, 종교는 무슬림 75%, 러시아 정교 20%, 기타가 5%로 분포되어 있다.¹⁴⁾ 화폐단위는 쉼(Com)이고, 1달러에 약 40쉼이다.¹⁵⁾

2) 정체성

⁷⁾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통권』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69

⁸⁾ CIA, www.cia.gov

⁹⁾ 카자흐스탄 대사관, “키르기즈스탄 현황” (2006), p. 1

¹⁰⁾ CIA, www.cia.gov (2008년 7월 기준)

¹¹⁾ 월드맵(Worldmap), www.worldmap.org

¹²⁾ 키르기즈스탄 정부홈페이지, www.gov.kg (2003년 통계)

¹³⁾ 본 내용은 K 선교사(40대 중반, A 단체 소속, 오쉬 사역자)와의 7월 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¹⁴⁾ CIA, www.cia.gov

¹⁵⁾ XE, www.xe.com

예로부터 대부분의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수니파에 속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이슬람보다 샤머니즘과 이슬람이 결합한 정령주의적인 민속 이슬람(Folk Islam)을 믿고 있다.¹⁶

3) 인구

잘랄아바드(Jalal-abad)시 시청의 자료에 의하면 잘랄아바드 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30여 개의 다른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키르기즈족이 43%, 우즈베크족이 32%, 러시아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 가능 인구는 52,106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잘랄아바드 시에 산업 시설이 증가하고 수많은 공장이 들어옴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¹⁸

4) 지리

키르기즈스탄은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남부와 동부는 거의 산으로 되어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천산산맥(天山山脈)에 의해 남부와 북부로 나뉘는데 잘랄아바드 주는 남부 서쪽 끝에 있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사는 지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 지는데 평지 쪽에는 주로 우즈베크인, 산지에는 키르기즈인이 주로 모여 산다.¹⁹

5) 역사

잘랄아바드 시는 1887년에 잘랄아바드 시가 되었으며 1891년에 잘랄아바드주의 대표적 도시가 되었다. 잘랄아바드 시는 2005년에 일어났던 레몬 혁명이 시작되었던 도시 중 하나로 바키예프(Bakiev) 현 대통령의 출신지이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즈음, 전 아카예프(Akayev)대통령 때 잘랄아바드 시에서 6명의 사람이 학살당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였으나 사실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6) 요약

높은 산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키르기즈스탄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크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

¹⁶ 키르기즈 한인 경제인 협회, www.kyrco.com

¹⁸ 잘랄아바드 시청, 잘랄아바드 정보 책자, (2008)

¹⁹ 본 내용은 A 선교사(30대 초반, A 단체 소속, 오쉬 사역자)와의 7월 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다. 또 역사적으로는 구 소련의 지배를 받았으며 샤머니즘적 무슬림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인구는 약 535만 명이며 다양한 종족이 함께 살고 있다. 남부 지역에는 우즈벱족과 키르기즈족이 인구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잘랄아바드 시 역시 키르기즈족과 우즈벱족의 비율이 각각 43%, 32%이다. 중앙아시아의 교두보인 키르기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각 종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2. 정치분야

1) 개요

잘랄아바드 시는 잘랄아바드 주의 중심 도시이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천산산맥과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정치적으로 남부가 많이 소외됨에 따라 두 지역 사이에 지역감정이 존재한다. 지역감정이 심화되면서 2005년에는 잘랄아바드와 오쉬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서 레몬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레몬 혁명 후 정권을 잡은 중앙정부와 잘랄아바드 출신의 바키예프 대통령은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여전히 지역과별 간에 균열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 동력을 하나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²¹

2) 정치구조

키르기즈스탄은 1993년,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으로 규정되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루어지고 의회는 일원제이며 사법부는 대법원, 헌법, 지역 법원, 최고재판관으로 이루어진다.²² 주요 정당에는 민주운동당, 민주세력연맹, 키르기즈 공산당이 있다.²³

1990년부터 15년 동안 독재 정치를 펼치던 아카예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부정 선거 논란으로 탓에 2005년 3월 24일, 잘랄아바드와 오쉬 등의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시민 혁명이 일어났다. ‘레몬 혁명’²⁴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은 곧 북부의 이스쿨(Issyk-Kul)과 탈라스

²⁰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71

²¹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 러시아 경향”, 『학술진흥재단』 (2005), p. 71

²²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www.wikipedia.org

²³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72

²⁴ 혹은 튜립혁명, 봄의 혁명이라고도 한다.

(Talas) 지역에까지 번지게 되었지만 약간의 소요 사태만 있었을 뿐, 아카예프 대통령이 혁명 세력을 진압하지 않고 망명하면서 성공적인 무혈 시민 혁명으로 평가 받고 있다.²⁵

레몬 혁명 후에 2005년 8월 14일에 바키예프 대통령과 쿨로프(Kulov) 총리가 당선하여 현 정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독립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부정부패와 경제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자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²⁶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한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9년 선거를 앞두고 레몬 혁명 당시 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광장에 시민이 모이지 못하도록 분수대를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²⁷

지난 2009년 7월 2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물가를 강제로 내렸는데, 예를 들어 기름은 22숨에서 17~18숨으로, 이들의 주식인 리뽀시까라는 빵은 15숨에서 8숨으로,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마르슈르뜨카라는 미니버스의 요금은 7숨에서 5숨, 6숨으로 내렸다.²⁸ 바키예프 대통령 지지하는 데에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 북부지역은 집권 후 전 대통령과 다를 게 없는 부정부패와 미비한 경제성장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남부지역은 현 대통령의 출신지역이고 전보다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다. 특히 대통령의 출신지인 잘랄아바드에서는 시민의 95%가 바키예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는 명목상 실시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바키예프의 재당선을 거의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다. 거리나 도로에서 수없이 많은 바키예프의 광고판을 달아 놓았으며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겉모습만 민주주의일 뿐 실상은 독재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 행정구조

잘랄아바드 주는 5개의 도시를 ‘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나누는데 각 도시는 카라쿨, 잘랄아바드, 타쉬쿠무르, 말리사이, 코리코라타이다.²⁹ 하지만, 잘랄아바드 시청에서 준 정보 책자에 의하면 6개의 라이온으로 구분하는데 나머지 한 도시로는 ‘굴작맛’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한다.

²⁵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72

²⁶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www.wikipedia.org

²⁷ 본 내용은 T 선교사(40대 중반, A단체 소속, 비취객 사역자)와의 7월 1일 인터뷰와 본 조사팀의 관찰조사에서 참조하였다.

²⁸ 본 내용은 A 선교사(30대 초반, A단체 소속, 오쉬 사역자)와의 7월 3일 인터뷰와 본 조사팀의 관찰조사를 참조하였다.

²⁹ 본 내용은 우마로프(40대 초반, 잘랄아바드 시 시청 통계관련 고위 공무원)와의 7월 8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4) 사법

키르기스스탄의 사법 구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5년, 혹은 10년 이상의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하면 판검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의 추천인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되며, 임기는 10년이다.³⁰ 판검사의 성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동등한 비율을 보인다.

재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재판 형식과 비슷하고, 재판 내용은 절도나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 많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사형제도는 5~6년 전에 폐지되었으며, 무기징역이 가장 큰 형벌이다.³¹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후에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송을 걸 때엔 변호사 선임비는 4,081숨(약 \$100)이며, 전체 재판에 드는 비용은 2만 숨(약 \$450)³²으로 잘랄아바드 시 시민의 평균임금이 4,000숨(약 \$100)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다.

5) 치안

잘랄아바드 시에는 5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경찰의 수는 약 100명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잘랄아바드 시의 인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경찰이 되려면 신체검사에 통과하여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경찰 학원에 다녀야 된다. 이들의 월급은 한 달에 6,000숨(\$140)정도 이다. 잘랄아바드 시에서 가장 흔한 범죄는 절도와 음주 가무이고 범죄에 따른 벌금이나 형벌은 그 죄의 가중치에 따라 결정된다.³³ 특히 시장에서 절도나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도시의 가장 큰 규모의 중앙시장에서조차도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요약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으로 북부보다 남부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감정이 존재하며, 2005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잘랄아바드, 오쉬 등의 남부지역을

³⁰ 키르기스스탄 헌법

³¹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73

³² 본 내용은 바킿(30대 중반, 검사 도우미)과의 7월 10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³ 본 내용은 에밋(45세, 경찰관)과의 7월 10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중심으로 무혈 시민혁명인 레몬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을 계기로 아카예프 대통령이 망명하고 바키예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바키예프 대통령 역시 부정부패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시민이 시민광장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남부지역에 물가를 강제로 내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도 키르기즈스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 당선을 확신했다.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 역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뿐 아니라 재판관에게도 비용이 들어가며 승소를 위한 뇌물 또한 불가피하다. 소송 한 건당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서민들 대부분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보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 대하여 분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키르기즈스탄에서 거짓과 부패의 영이 걷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도록 이들을 섬길 자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분야

1) 개요

잘랄아바드 시는 북부지역이나 남부의 오쉬(Osh)시와 비교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여러 종족이 함께 사는데 이 중 대부분이 키르기즈족과 우즈베크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종족은 겉으로는 잘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토문제로 생겨난 두 종족 간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종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³⁴ 또 두 종족이 공통으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지니고 있어 가족 내에서 가장의 지위가 가장 높으며 여성의 역할은 크지만, 지위는 낮아 불평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가족구조

키르기즈스탄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족형태였지만 근래에는 시골지역 역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중심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서 분가해도 친족

³⁴ 위에서 말하는 두 종족 간의 감정은 1992년 우즈겐(Uzgen)에서 있었던 두 종족 간의 민족 분쟁으로 인해 생긴 우즈베크인들의 소외감 등을 말한다.

들과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이 특징이다.

3) 지역공동체 구조

잘랄아바드 시의 지역공동체는 종족으로 구분된다. 잘랄아바드 시의 다수 종족은 키르기스족과 우즈베크족으로, 키르기스족은 아파트에, 우즈베크 족은 땅 집에 종족끼리 모여 거주하고 있다. 현지 교회 또한 키르기스족 교회, 우즈베크족 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곳이다.³⁵

4) 여성의 역할

중앙아시아의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의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 여성이 모든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안일과 양육을 도맡아서 해야 한다.³⁶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하여 중년여성들은 이를 당연시 하는 데 반해, 젊은 세대일수록 부당함을 느낀다.³⁷

키르기스스탄의 이혼율은 굉장히 높는데, 불평등한 가족 구조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우즈베크인은 부모님에 의한 정략결혼이, 키르기스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하여 결혼하는 보쌈문화가 부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 형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부부 갈등뿐만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을 일으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³⁸ 또 이슬람식의 간편한 이혼 법³⁹ 역시 높은 이혼율의 원인이 된다.

5) 요약

잘랄아바드 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 또한 역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에 의해 이혼가정이 많다.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이혼가정이 많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외국으로 떠나는 가정으로 말미암

³⁵ 하지만 현지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개척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두 종족이 어울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도 있었다.

³⁶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p. 375

³⁷ 본 내용은 통역자 I(29세, 키르기스족)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³⁸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통권 제 6호 (2009년 자료), p. 375

³⁹ 남편이 배우자에게 세 번 "이혼하자"라고 말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아 고아와 결손가정이 많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다수의 키르기즈족과 우즈베크족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모여 산다. 키르기즈족과 우즈베크족은 각각 그들의 종족 특성에 맞게 주거를 짓고 생활한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잘랄아바드 시의 사회 양상에 대한 이해와 키르기즈족과 우즈베크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역이 요구된다.

4. 경제분야

1) 개요

키르기즈스탄은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면, 담배, 과일, 육류 등이 이 나라의 주요 생산물이다. 이 중에 담배와 면만이 수출된다. 산업 수출은 금, 수은, 우라늄, 천연가스, 전기 등을 포함한다. 잘랄아바드 시는 키르기즈스탄에서 비쉬켈, 오쉬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현 대통령 바키예프⁴⁰의 고향이다. 키르기즈스탄의 주된 산업은 농업인데 비해 잘랄아바드 시의 주된 산업은 서비스산업이다. 잘랄아바드 시는 성장하는 도시로 바자르(Bazaar, 시장)가 있는 시의 중심부부터 새로운 빌딩과 새로운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⁴¹

2) 산업구조

키르기즈스탄은 CIS 국가⁴² 중 처음으로 WTO의 가입 승인을 얻어낸 나라로, 독립 이후에 급진적인 토지개혁 등과 같은 시장개혁을 단행했다. 2007년 정치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8.5%라는 급격한 GDP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의존국들(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경기 위축으로 GDP 성장률이 소폭 하락해 7.6%에 그쳤다. 그러나 금 생산을 제외하면 키르기즈스탄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7.6%가 아닌 5.4%에 불과할 만큼 금 생산의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다.

시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잘랄아바드 시의 경제구조는 산업 27.2%, 건설 13.6%, 운송수단 7.1%, 농업 0.6%, 기타 51.5%이다. 잘랄아바드 시에서 농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잘랄아바드 주 내의 다른 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나 목축업과 같

⁴⁰ 현장조사를 떠난 기간 중에 (2009년 7월 23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었던 바키예프가 재당선 되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⁴¹ 본 내용은 아캄바이프 툴락 부르캄노비치(44세, 잘랄아바드 시장)와의 2009년 7월 8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² 구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하게 된 나라들끼리 모여서 구성된 정치 공동체.

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⁴³

잘랄아바드 시에 사는 서민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길 원하는데, 시장의 상점을 사려면 15,000숨, 대여를 하려면 크기에 따라서 한 달에 2,000~5,000숨을 정부에 내야 한다. 이런 높은 가격에도 장사하려는 이유는 한 달에 2,000숨에서 많게는 15,000숨까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의 월급이 4,000숨인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지역주민들의 수입은 2007년 대비 1.5배 증가하였다.⁴⁴

잘랄아바드 시 내에는 34개의 기업이 있다. 탄산수, 밀가루, 케이크, 와인, 주스, 각종 과일 가공산업 등 주로 식품관련 가공 기업이고, 4개의 건축기업이 있다. 2008년, 산업 부문에서 243억 35백만 숨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기술부족으로 순수익이 없고 오히려 빚을 지는 실정이다. 잘랄아바드 주 내에 지어진 댐 역시 잘랄아바드 주 자체 기술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3) 발전수준

잘랄아바드 시의 1년 예산은 약 3억 숨으로 한화 약 91억 원에 해당한다. 현재 시에서 9개의 주요 공공사업이 진행 중이며 3년마다 재검토된다. 외국인 투자는 2,312백만 숨, 내국인 투자는 5,902백만 숨으로 외국인 투자는 전체투자의 28.1%, 내국인 투자는 71.9%를 차지한다.⁴⁵

물가는 주변지역보다 비싼 편이지만 과일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일 값은 다른 곳에 비해 싸다. 그에 비해 공산품은 생산이 안되므로 석유 값이 오를 때마다 물가가 민감하게 변동한다.⁴⁶

잘랄아바드 시에는 15개의 은행이 있고, 신용회사가 있다. 은행의 숫자는 2007년과 비교하여 21% 증가하였다. 시내에 은행이 많아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마다 1~2%의 차이는 있지만, 입금 이자율은 9~16%이고, 대출이자율은 달러일 경우는 20~28%, 숨일 경우는 36%이다. 시민 중 20~30%만이 예금을 하고, 비싼 이자율 때문에 0.006%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 은행 대부분은 통장은 발급하지 않고, 카드만 발급한다. 은행에는 주로 러시아화폐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유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은행거래는 추수 때인 가을에 주로 활발해진다. 신용불량자들은 은행에서 다뤄지지 않고, 법원의 제재를 바로 받게 되어 있다.⁴⁷

⁴³ 본 내용은 이브라힘 아호노바 아르카보(40세, 로즈 아이지못 학교 초등부 교장 선생님)와의 2009년 7월 1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⁴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⁵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⁶ 본 내용은 백 바키르프(33세, AUB은행 지역 지점장)의 2009년 7월 1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⁷ 본 내용은 백 바키르프(33세, AUB은행 지역 지점장)의 2009년 7월 15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실업자는 현재 1,405명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3.3% 감소한 것이다. 시민 중 4,515명의 사람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시 전체에는 6천 5백 명의 연금수혜자가 있는데 한 명당 한 달에 1,368숨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은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⁴⁸

4) 주요산품

잘랄아바드는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면, 밀, 많은 종류의 과일, 야채, 옥수수, 땅콩, 아몬드, 담배,⁴⁹ 해바라기 등을 키운다. 이곳의 주된 수출 품목은 면, 향신료, 말,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유이다. 면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향신료는 중국으로도 수출한다. 또 잘랄아바드 시에는 탄산수가 나는 샘물이 있다.⁵⁰ 구약의 욥이 아플 때 마셨다고 전해지는 물이 바로 이 샘물이다. 이 샘물과 근처 다른 샘물들이 있는 지역에 요양소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 탄산수는 지역의 이름이 적힌 병에 담겨 키르기즈스탄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다.

잘랄아바드 주의 코코아타(Kochkor-Ata)시는 작은 규모의 석유 산업의 본거지로 천연가스, 석탄, 기름 등의 자원이 있으며, 섬유공장과 수력발전소가 있다.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5) 요약

잘랄아바드 시는 시골에서 도시로 탈바꿈 하는 지역이다. 전통적인 천막 바자르와 건물 바자르가 공존하고 있고, 새로운 공장들이나 산업체,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으며, 많은 땅이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 또 이 지역에서 나는 탄산수를 가공하여 키르기즈스탄 전 지역으로 판매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돈을 구걸하는 아이나 어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어린 나이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식당이나 시장 등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잘랄아바드 시의 도시화 물결은 여러 가지 도시화와 관련된 기술과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화를 도와주기 위한 기술과 도시화에 필요한 재화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의 부족은 자체적인 도시화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시

⁴⁸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⁴⁹ 현재는 담배의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담배생산을 중단했다.

⁵⁰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차원에서 구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시의 관심사에서 제외되어 고통 당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체적 선교 사역자가 필요하다.

5. 생활분야

1) 개요

잘랄아바드 시의 사람들은 평범한 도시 생활을 한다. 아침이면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집 안에서 쉬거나 아파트 밖에서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여자들은 약 6세부터 거의 모든 집안일, 육아 등을 모두 도맡아 하고 남자들은 일절 참견하지 않는다.⁵¹ 이들의 결혼은 보쌈(Bride kidnapping), 중매 등으로 성사되고, 연애결혼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젊은이들은 생활비 대부분을 치장하는 데 쓰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끼는 편이다. 한 달 생활비가 300숨이라면 230숨은 치장하는데 소비한다.

2) 식생활

육류(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감자, 쌀, 난(Naan), 차이(茶), 우유, 채소 등이 주식이다. 키르기즈인들은 특히 양고기를 즐기는데 양고기를 끓이거나, 꼬치'샤슬릭', 군만두 '쌈싸'나 찐만두 '만떡'등의 음식으로 요리해서 먹는다. 보통 키르기즈인들은 매 식사 때마다 차이와 난을 먹는다. 차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녹차나 홍차 종류이다. 난은 동그랗고 큰 빵인데 밥상에 풍성하게 올려놓고, 손으로 찢어놓는다. 빵을 식탁 위에서 던지거나 찢은 빵을 뒤집어 놓는 것은 금기로 여겨진다. 고기에서 지방질은 진미로 생각해서 흔히 덩어리 채로 먹거나 내어놓는다. 키르기즈인들은 이것을 '훔 살'이라고 부르며 외국인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옆으로 떼어 놓는 것을 보면 이상스럽게 생각한다. 보통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저녁을 많이 먹어, 위장병이 많다.⁵²



〈그림 III-1〉 체리콤포트

키르기즈스탄은 한 해에 평균 300일 동안 밝은 햇빛이 뜨고, 새벽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⁵¹ 본 내용은 에이든(25세, 피스콕스-미국정부단체-소속 현지 봉사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⁵² 키르기즈 한인 경제인 협회, www.kyrco.com

지 해가 떠있다. 이렇게 풍부한 일조량 덕에 키르기즈스탄에서 나는 과일은 당분과 과즙이 많고 맛이 좋다. 과일의 종류로는 체리, 수박, 드나⁵³, 복숭아, 무화과, 포도, 살구 등이 있다.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여름에 이 과일들을 이용해서 설탕에 절여콤포트라는 음료를 만든다. 이 음료들은 가을 동안 익혀두었다가 과일이 나지 않는 겨울에 음료로 마신다.

주로 마시는 말 젖을 발효시킨‘크므스’, 곡식을 발효시킨‘막심’이나 ‘보조’, 우리나라의 대추차와 맛이 비슷한‘우락’등의 음료를 내놓기도 한다. 더운 여름이면 이 음료들을 가지고 나와 길거리에서 팔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 슬러시,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등이 들어와서 시장 등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3) 의복

잘랄아바드 시에는 키르기즈족, 우즈벱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옷차림은 비교적 자유롭다. 남자들은 대부분 긴 바지를 입는다. 남자들은 여름에도 양털로 만든 ‘칼팍’⁵⁴이라는 모자나 ‘토무즈’라는 머리 윗부분만 가리는 작은 사각형 모자를 쓴다.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모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은 대부분 긴 팔의 원피스와 그 안에 같은 색의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줄룩’이라고 불리는 천으로 머리를 감싸는 형태의 옷차림을 한다. 줄룩의 색깔은 결혼한 지 한 달 정도까지는 대부분 흰색의 천을 이용한다. 하지만, 많은 젊은 여성들은 자유롭게 현대식의 옷을 입는다.

키르기즈족이나 우즈벱족의 비율이 높아지는 남부 지역의 시골로 갈수록 옷차림이 보수적이고 이슬람의 예절에 따른다. 남자는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않고, 여자들은 머리를 감싸고 다니고 긴 팔 원피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키르기즈스탄에도 한국의 한복과 같은 전통 복장이 있다. 남자들이 입는 전통복장은 갈색이나 카키색 바탕에 금색 실로 수 놓인 긴 코트와 칼팍이다. 여자들이 입는 전통복장은 어깨에서 팔목까지 통이 커지고 손목부분과 치마 밑단에 레이스가 달린 파스텔 색조의 원피스에 갈색의 양털 조끼를 입고 머리에 술이 달린 모자를 쓴다.



〈그림 Ⅲ-2〉 이슬람 예절에 맞추어
옷 입은 아이

⁵³ 메론과 비슷한 외관에 메론과 참외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⁵⁴ 끝이 약간 뾰족하며, 검정, 빨강, 초록색으로 간단한 문형을 수놓은 모자

4) 주거

잘랄아바드 시에는 벽돌과 목재로 지은 땅 집이나 구소련 당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 땅 집에는 주로 우즈베크인들이 살고 키르기스인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나 전통적인 키르기스인의 주거형태는 ‘유르타’(Yurta)라는 천막 집이다. 이것은 주로 목자들이 여름철에 목초지에서 많이 사용하던 주거 형태이다. 지금도 천산산맥 곳곳에서 키르기스인들이 유르타를 지어놓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림 Ⅲ-3〉 천산산맥의 유르타

다. 이러한 유르타는 키르기스인들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이다. 지금도 흔히 키르기스인들은 자주 ‘유르타 안에서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집안에서 온 밤을 자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한다.

보통 가정집에는 ‘퇴색’이라는 긴 직사각형의 이불을 깔아둔다. 퇴색은 대부분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들로 칠해져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사각형 모양으로 깔아서 방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잠을 잘 때는 바닥에 펴는 이불로 이용된다.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에는 유럽의 화장실처럼 배수구가 없으므로 화장실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위생의료

주민들은 대부분 낮은 위생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탄산수에 식용색소를 타서 파는 노점상은 사람들이 사용한 컵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4개의 병원이 있는데 잘랄아바드 주립병원, 결핵병원, 산부인과, 다다바예프 병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대체로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암 말기환자나 에이즈 환자, 영아와 노인, 장애인 등의 치료비는 주의 지원으로 무료이다.⁵⁵ 하지만, 좋은 제도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 기술과 의료 기구 등이 부족하여 시술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감염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공적인 병원 외에 이슬람경전을 이용한 주술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두통치료가 제일 비싸고 몸 아래로 내려가면서 치료비는 적

⁵⁵ 본 내용은 굴바이라(60대, 잘랄아바드 주립병원 직원)와의 2009년 7월 11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어진다.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10일 치료비는 700솀이다.⁵⁶

6) 환경

잘랄아바드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고 2, 3개 정도가 모여 곳곳에 위치해 있다. 쓰레기 수거의 주기는 굉장히 길며, 쓰레기통 주변은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쓰레기 매립은 1년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시골 지역에서는 열악한 관개시설로 인해 종종 식수와 관개용수의 공급이 제한된다. 잘랄아바드 주를 통해 흐르는 강은 3개가 있고, 관개수로는 3개가 설치되어 있다.⁵⁷ 식수는 72m 아래의 지하수를 이용한다. 수돗물에는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는 수돗물을 한번 끓이고 나서 앙금을 걸러내어 마신다. 도시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파트는 고층일수록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언제 공급이 중단될 지 모른다. 낮에는 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해가 떠있는 낮 동안 많은 양의 물이 증발되기 때문이다. 비가 온 뒤에는 물 사정이 좋은 편이다.

7) 교통

잘랄아바드 시에서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 택시, 마르슈르뜨까⁵⁸이다. 잘랄아바드의 택시는 한국에서 수입한 티코나 마티즈가 대부분이다. 운전면허는 만 15세가 될 때부터 딸 수 있다.⁵⁹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택시요금은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8) 대중매체 보급률

잘랄아바드 주 영토 내에는 천산산맥 가운데 위치해 있는 댐이 있어 전기사정은 좋은 편이고 220V~250V의 전기가 전달된다.

한 가구당 적어도 1개 이상의 TV와 DVD가 있다. 보통은 이것들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부유층은 유럽이나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

⁵⁶ 본 내용은 진료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의 2009년 7월 11일 인터뷰에서 참조하였다

⁵⁷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⁵⁸ 미니밴 크기의 차량의 안을 개조하여 의자를 가져다 놓고, 차 유리 앞에 번호를 붙여 버스처럼 운행한다.

⁵⁹ 본 내용은 울룩백(20세, 대학생)과의 2009년 7월 3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1개의 쥐뜨르라는 주립 채널이 있고, 오쉬티비와 엘튀르라는 2개의 민영채널이 있다. 신문사는 12개가 있는데, 이 신문사들은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키르기즈어로 되어 있다.⁶⁰

9) 요약

잘랄아바드 시의 사람들은 난, 차이, 양고기, 과일 등을 주로 먹는다. 식수는 주로 수돗물을 마시거나, 한번 끓여 걸러 마시는데 수돗물에 포함된 석회 성분 때문에 사먹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도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수 때를 대비해 물을 받아놓아야 한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4개의 병원이 있는데, 의료 기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주술병원이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식수 문제와 의료문제는 총체적 선교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돗물에 많이 포함된 석회물질을 효과적으로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기보다는 주술사를 찾아가는 이 지역의 시민들이 제대로 건강진단을 받고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의료 선교팀의 활동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잘랄아바드 내 병원들의 진단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병원의 의사들도 한국의 병원들과 협력하기를 원하므로 의료팀이 단기 또는 장기 사역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6. 문화분야

1) 개요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들은 유목 민족들답게 문화 또한 유목(遊牧)에 잘 동화되어 있다.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수식어구는 잘랄아바드의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러시아 지배 시절의 영향으로 서구적이거나 사회주의성향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결혼 문화로는 보쌈 문화가 행해지고 있으며, 장례식 때에는 안식을 준다는 의미로 작은 집 모양의 무덤을 짓는다. 잘랄아바드 역시 현대화와 세계화의 영향 아래, 현대 서구 문화와 전통문화의 혼합적 양상을 띤다.

⁶⁰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시청 통계관련 공무원과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2) 예술

키르기즈의 예술 형태로는 구전 문학(서사시나 시낭송), 기록된 문학, 양탄자 제조 및 수공예, 악기, 은장식, 가죽 공예, 무용 등이 있다. 전통 악기로는 ‘코무즈(Komus)’⁶¹가 있다. 코무즈는 현재 국립 교향악단에서도 사용된다. 구전 문학은 100,000행 이상으로 이루어진 ‘마나스’ 서사시가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 서사시이다. ‘마나스’는 과거 에니세이(Enisei)강 부근에 흩어져 있던 키르기즈인을 규합, 위구르인과 싸우면서 현재의 땅에 이주할 때까지 키르기즈인들을 이끈 전설적인 인물로 전해진다.⁶²

잘랄아바드에는 7개의 극장이 있는데 그 중 3개는 겨울, 4개는 여름에 사용한다. 대편성의 교향악단이라 일컫는 ‘필하모니’ 극장도 있다. 2개의 시립 운동장이 있고 3개의 공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일, 슬로바키아를 위한 문화센터도 있는데 주로 문화보전과 각국으로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내에 있는 ‘바르쁘’ 극장은 430명의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표 값은 80~100숨 정도이다.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영화만을 상영한다. 또한, 극장에서는 2년에 한 번 ‘아즈드 오르도’라는 키르기즈내의 각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며,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다.⁶³

3) 특수 절기

〈표 Ⅲ-1〉 키르기즈스탄의 국가기념일

날짜	절기
1월 1일	새해
1월 7일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2월 23일	모국 방어자의 날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21일	누루즈(Nowruz)
5월 1일	노동의 날(Labor Day)
5월 5일	헌법의 날
5월 9일	승리의 날(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
5월 29일	무장 군인의 날
8월 31일	독립일
11월 7일	사회 혁명의 날

⁶¹ 3현으로 된 악기로 기타와 그 모양이 비슷하다.

⁶² 키르기즈스탄 여행정보, www.Krygyzmission.com

⁶³ 본 내용은 아이게립(22세, 바르쁘 극장 직원)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1월 1일에는 새해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3월 8일 여성의 날은 키르기즈스탄의 중요한 축제일 중의 하나이다. 이 날에 남성들은 연인이나 어머니, 여자친구 등 주변의 여성에게 선물을 주고 축하한다. 3월 21일 ‘누르즈(Nowruz)’는 무슬림들의 새해 첫날을 의미한다. 노(now)는 ‘새로운’, 루즈(ruz)는 ‘날’을 의미한다. 11월 7일 사회 혁명의 날은 본래 2005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 정부가 11월 혁명 기념일을 대체해 지정한 러시아 국경일인데, 키르기즈스탄은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4) 전통놀이

키르기즈스탄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로는 부즈카시(Buzkashi)를 꼽을 수 있다. ‘부즈카시’는 염소를 뜻하는 페르시아어의 ‘부즈(buz)’와 ‘사냥’을 뜻하는 ‘카시(kashi)’의 합성어로 ‘죽은 염소를 잡아채가다.’라는 의미이다. 부즈카시는 폴로(Polo) 경기와 자주 비교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부즈카시는 공 대신 죽은 염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경기 방법은 팀을 이루어 각 사람이 말을 타고 죽은 염소를 지정한 장소에 먼저 던져 넣는 팀이 점수를 얻는 식이다. 매주 경기가 개최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개인이 상금을 걸고 경기를 개최하기도 한다.

5) 결혼과 장례, 출산

흔히 보쌈결혼이라고 불리는 ‘알랍카츠’는 키르기즈스탄의 중요한 결혼 풍습으로, 많게는 기혼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경우 신랑 측은 800달러 정도의 현금에 소 한 마리를 얹어줘야 하는 ‘신부 대금’을 치러야만 한다. 지방과 시골로 갈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이러한 풍습에 따라 결혼하고 있다. 지난 90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온 ‘보쌈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납치한 남자와 그 가족들에게 관대한 편이다. 아직도 대부분 부모들이 딸에게 납치되었을 때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은 강제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⁶⁴

키르기즈스탄에서 장례식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후에 치른다. 장례식 때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안치하기 위해서 몇 채의 유르따를 세운다. 장례식에는 보통 ‘몰도’라는 무슬림 승려를 초청하여 코란의 장을 낭송하게 하며, 벽돌로 만든 묘에 시체를 안치한다. 이들은 예로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유목민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집 모양으로 무덤을 만든다. 이는 비로소 한 곳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들은 장례식과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에 손님들이 많이 올수록 고인이 많은 복을 누릴 수

⁶⁴ 미션투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보쌈결혼”, (2009년 5월 13일)

있게 된다고 믿는다.⁶⁵

아기가 태어나 10일째가 되는 날에는 잔치를 열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다. 아들이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고, 딸이면 할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큰 잔치를 열고 할레⁶⁶식을 한다.⁶⁷

6) 예절

키르기즈인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민족으로 손님접대를 매우 잘한다. ‘손님은 신의 선물, 오랫동안 머물러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키르기즈스탄 속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손님을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오른손으로만 했을 때는 사악한 마음이 없음을, 양손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표현한다. 친분이 두터운 경우, 남자들은 주로 포옹을 하며 여자들은 서로의 양쪽 볼에 입맞춤한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노인을 특별히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 노인에게는 ‘악사칼(Iksakal)’⁶⁸이라는 호칭이 주어진다. 만약 차이를 마시는 경우라면 찻주전자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차이를 달라고 하며 주전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차이는 여자가 따르는 게 좋다. 대접을 받았으나 식사를 하고 갈 시간이 없는 경우라도 난을 조금이라도 떼어먹고 가는 것이 예의이며,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이다. 이들은 식사나 기도 등 일의 마침의 표시로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 내리는 ‘오막’이라는 기도를 한다.⁶⁹

7) 금기

키르기즈인의 주식인 난을 먹을 때는 뒤집어 놓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곧 먹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난을 던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스크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특별히 여성들이 샷대질하는 경우 이를 성적인 유혹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⁷⁰

8) 대중문화

⁶⁵ 키르기즈스탄 여행정보, www.kyrgyzmission.com

⁶⁶ 할레란 남성의 성기 일부, 특히 포피를 의례적으로 절제 또는 절개하는 습속을 말한다.

⁶⁷ 키르기즈스탄 여행정보, www.kyrgyzmission.com

⁶⁸ 백발(白髮)이라는 뜻이다.

⁶⁹ 본 내용은 에이든(25세, Peace Corps 소속 현지 봉사자)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⁰ 본 내용은 에이든(25세, Peace Corps 소속 현지 봉사자)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시골 지역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방영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시청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다. 예전에는 인디언 문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 이후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⁷¹ 대학생들은 주로 스포츠 클럽에 참가하거나 기타나 코무즈를 연주하며 방과 후 생활을 한다.⁷² 일부 음향 시설을 갖춘 식당에는 거의 매일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춤을 춘다. 주로 전통적이고 흥겨운 음악 장단에 맞춰 사람들은 자유롭게 춤을 춘다.

9) 관광지

잘랄아바드에는 ‘욥의 무덤(Job's Tomb)’이 있다. 욥의 무덤에는 팔각정과 같은 기념비가 있는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욥의 움막이 있다. 움막 앞에 욥의 샘물이 있다. 욥의 샘물에서는 실제로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어 샘물을 마실 수도 있다.

욥 무덤의 유래에 관하여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그 중 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한 부자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낙타 떼를 데리고서 이곳 저곳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몸이 몹시 아프더니 온몸에 종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는 매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은 신은 감동하여 그곳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그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다.⁷³

10) 요약

과거 러시아의 지배 가운데에 있으면서 생겨났던 러시아 문화와 키르기즈스탄 만의 전통문화는 어느 정도 융화를 이루어 공존하고 있었다. 유목 민족의 특징처럼 과거에 수없이 옮겨 다니며 살았던 그들의 삶과는 달리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문화적 요소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 그곳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이 많이 쇠잔해 지는 것은 사실이다. 선교적으로는 그들의 유목민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며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음 전파 방해의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그들의 이슬람적 세계관의 점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⁷¹ 본 내용은 들로자(20세, 오쉬 지역 대학생)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² 본 내용은 마나스(32세, 잘랄아바드 주립대학교 교직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³ 본 내용은 David H. Harrison의 www.jewishsightseeing.com를 인용하였다.

7. 교육분야

1) 개요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교육 과정은 초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16년제로 1~4학년은 초등과정, 5~8학년 중등과정, 9~11학년 고등과정이다. 대학의 학제는 5년이다. 11년제 교육은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후로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구소련 시절의 영향 아래 교육관련 복지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으나, 현재정부가 이것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점점 교육자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교수의 연봉이 낮으며, 학생들의 문화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⁷⁴

2) 현황

잘랄아바드에는 21개의 유치원, 22개의 초등학교⁷⁵, 5개의 대학교가 있다. 조사팀이 방문했던 한 유치원은 2~7세의 총 18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교실을 가진 유일한 곳이었다. 이 유치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400숨(10\$)이 필요하다.

‘로즈 아이지뭇’이라는 한 초등학교에는 약 1,500명의 학생이 있다. 전체 학급 수는 56개이고 선생님은 67명이며, 한 반에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 보통 7살 정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남녀의 성비는 1.07: 1로 거의 균등하다. 처음 6년 동안은 학비와 식비가 무료이다. 9학년 이후에는 학급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방과 후 스포츠 클럽이 있으나 재정 여건상의 문제로 그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⁷⁶

또한, 대학의 경우 3곳은 국립, 2곳은 사립대학교이다. 매년 3,52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전체 학생의 10%가 장학금을 받게 되며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로 300숨 정도가 지급된다. 평균 대학의 1년 학비는 22,000숨 정도이다.

잘랄아바드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2개가 어린이 도서관이다. 어린이 도서관에는 약 560,000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⁷⁷

⁷⁴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p. 387

⁷⁵ 11년제 교육을 담당한다.

⁷⁶ 본 내용은 이브라힘 아흐노바 아르카보(40세, ‘로즈 아이지뭇’ 초등학교 교장)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⁷ 잘랄아바드 통계청자료를 참고하였다.

3) 인식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교의 교수나 병원의 의사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학업의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기도 하다.

4) 대학 현황

전반적으로 키르기즈스탄에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많다. 이 대학들은 이슬람의 막강한 지원으로 최신식 건물을 갖춘 것은 물론 학비의 전월 면제, 그리고 터키(Turkey)로 1년간 무료 유학 등의 혁신적인 교육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 학교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공부해야만 한다.⁷⁸

조사 팀이 방문했던 키르기즈스탄과 터키의 연합으로 세워진 ‘잘랄아바드 경제대학교’에는 약 5천여 명의 학생과 3백여 명의 교수가 있다. 그 중 30~35명이 외국인 교수이다. 터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많은 학생이 유학을 온다. 약 40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기는 10학기로 5년제이다. 키르기즈어와 터키어로 주로 강의를 하며, 러시아어로도 강의를 하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⁷⁹

5) 요약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전반적인 교육 이슈로는 ‘이슬람적 이념의 대학 교육 점령화’가 떠오르고 있다. 이들 대학은 다소 혁신적인 교육 정책들과 막강한 이슬람 국가의 지원으로 현재 키르기즈스탄 내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⁸⁰ 따라서 가계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일부의 키르기즈인들에게는 이러한 무료 교육의 혜택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부족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와 그로 인한 교육의 성장을 위하여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⁷⁸ 본 내용은 D선교사(40대)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⁷⁹ 본 내용은 잘랄아바드 경제대학교(University of Economy and Enterprise) 총장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⁸⁰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p. 388~389

8. 종교분야

1) 개요

키르기즈스탄은 천산산맥과 페르가나 산맥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북쪽보다 남쪽의 이슬람이 강하다. 남부의 오쉬 지역과 잘랄아바드 지역의 경우를 보면 교회들은 종교법개정 이후에 등록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모스크는 등록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큰 모스크를 신축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이슬람은 샤머니즘과 이슬람이 혼합된 민속 이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종교현황

키르기즈스탄의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 75%, 러시아 정교 20%, 기타 5%로 분포되어 있다.

(1) 제1 종교 - 이슬람

잘랄아바드에는 11개의 큰 모스크와 50개의 작은 모스크가 있다. 이슬람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부유한 나라의 투자자들이 건물을 세운다. 정부는 모스크를 지을 수 있다는 허가만 내준다. 정부는 수도 비쉬켄에 있는 한 개의 큰 모스크만 지원한다.⁸¹ 금요일에는 400~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스크에 모이고 평소에는 20~3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다.⁸²

(2) 제2 종교 - 러시아 정교

키르기즈스탄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러시아종교는 이방 종교라는 느낌이 강하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정복을 본격화하면서 그들의 문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정교의 문화와 영향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폈다.⁸³ 하지만, 중앙아시아가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잘랄아바드에는 한 개의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60년 정도

⁸¹ 본 내용은 쇼호브이딘(36세, 잘랄아바드 이맘)과의 7월 16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⁸² 본 내용은 압따마리프(58세, 모스크 경비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⁸³ 키르기즈 한인 경제인 협회, www.kyrco.com

되었고, 현재 30~50명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⁸⁴

(3) 마나스 숭배

마나스는 키르기즈인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자기 민족을 압제자들에게서 해방한 인물이다. 여러 면에서 마나스는 키르기즈인들의 문화적, 영적인 정체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십 만행 이상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 서사시인 마나스 서사시를 암송하는 ‘마나스치스’라는 사람들도 있다.⁸⁵ 마나스 장군의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점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나스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이슬람과 기독교 현황 비교

아래의 표를 통해 키르기즈스탄 북부와 남부지역의 이슬람과 기독교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잘랄아바드가 속한 남부지역이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슬람의 세력이 강하고 교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표 Ⅲ-2〉 키르기즈스탄 북부와 남부지역의 모스크와 교회 비율 비교

	모스크 : 교회 비율	교회 분포 비율	모스크 분포 비율
북부지역 (추이, 나른, 탈라스, 이스쿨)	66 : 34	82%	23%
남부지역 (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97 : 3	18%	77%

키르기즈스탄 남부지역의 오블라스트⁸⁶ 별 모스크와 교회 수는 다음과 같으며, 잘랄아바드 시의 모스크 수는 61개, 교회 수는 총 5개이다⁸⁷.

〈표 Ⅲ-3〉 키르기즈스탄 남부 오블라스트 별 모스크와 교회 수 비교(2008)⁸⁸

	모스크	교회
잘랄아바드 오블라스트	457	19
오쉬 오블라스트	590	15
바트켄 오블라스트	238	6
합계	1285	40

⁸⁴ 본 내용은 A(70대 여성, 러시아정교회 관리)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⁸⁵ 키르기즈 한인 경제인 협회, www.kyrco.com

⁸⁶ 주(state)를 의미하는 현지어이다.

⁸⁷ 잘랄아바드 시의 모스크와 교회 수는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종교특징

이슬람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신앙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절제와 인내를 중시하여 이것이 뛰어난 사람은 신앙심이 좋다고 여긴다. 모스크에서는 종교적 행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나누어준다. 일년에 한번 자캇(Zakat)이라는 행사를 할 때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⁸⁹ 자캇은 가난한 사람과 공공복지에 금품을 화사함으로써 마음을 씻는 의무인데, 보통 라마단이 끝날 때 1년 수입의 2.5% 정도를 내도록 되어있다.⁹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슬람 종교행사로는 쿠르만아이트, 라마단아이트 등이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예매(라마주나)가 있다.⁹¹

4) 종교지도자

(1) 이슬람 지도자 이맘(Imam)

이맘은 기도나 장례식 등을 진행한다. 장례식 때는 유가족들이 이맘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맘은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다. 이맘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앙심만을 인정받고 이맘이 되기도 한다.⁹² 이맘이 되고자 하는 신학생은 모스크에 모여 함께 공부를 한다. 이슬람 신학생은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이 신학생들의 비자와 항공권 비용을 지불해주기도 한다.⁹³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1) 키르기즈스탄 종교법 개정⁹⁴

2009년 1월 12일,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새로운 종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이전에는 키르기즈 시민 10명 이상만 참여하면 종교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시민 2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종교단체, 외국단체, 선교사의 활동, 종교단체의 활동기간 등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

⁸⁹ 본 내용은 쇼호브이딘(36세, 잘랄아바드 이맘)과의 7월 16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⁰ 네이버 블로그, 청진한실, <http://blog.naver.com/seungboo10/80068571109>

⁹¹ 본 내용은 압파마리프(58세, 모스크경비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² 본 내용은 압파마리프(58세, 모스크경비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³ 본 내용은 크야스(20세, 이슬람신학생)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⁴ 미션투데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새로운 종교법 발효”, (2009년 1월 29일)

다. 공공장소에 종교서적, 테이프, 비디오 등을 배포하는 것과 종교적인 목적으로 가정과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금한다. 종교단체의 헌금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관습, 예식, 문화적 활동에 대한 관련법이 포함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종교법은 이미 중앙아시아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열려 있던 키르기즈스탄도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요약

키르기즈스탄의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 75%, 러시아 정교 20%, 기타 5%로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의 세력은 남부지역이 더 강하다. 남부지역에 많은 모스크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서진하는 기독교의 복음과 동진하는 이슬람의 충돌지점이다. 때문에 키르기즈스탄을 복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정된 종교법으로 인해 현지교회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법 이후에 교회등록은 어려워졌고 종전에 등록한 교회들의 기록은 무효화되었다.⁹⁵ 현지교회들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와 선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9. 기독교 상황

1) 기독교 개요

잘랄아바드 시에는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복음화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잘랄아바드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 종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잘랄아바드 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 전반적으로 기독교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월 12일,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새로운 종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키르기즈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보장되는 나라였지만, 중앙아시아에 흐르는 이슬람 강화 기류에 합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은 각종 종교단체의 등록과 종교서적 및 미디어반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교법이 개정된 원인은 이슬람 근본주의단체의 활동과 키르기즈스탄에 미치는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꼽는다.⁹⁶ 종교법 개정으로 최근 많은 교회가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⁹⁵ 본 내용은 B선교사(40대 중반, 오쉬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⁶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p. 390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근래에 많이 있었다.⁹⁷

2) 기독교 현황

(1) 종족언어 성경 유무

키르기즈어, 카작어로는 신, 구약이 모두 번역되었으며 우즈베크어로는 모세 오경, 시편, 신약이 번역된 가운데에 있다.⁹⁸

(2) 종족언어로 된 기독교 문서

질이나 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다. 키르기즈어나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⁹⁹

(3) 복음을 담고 있는 영화

예수 영화, 막달라 마리아 영화가 있다. 최근에는 막달라 마리아 영화에 대한 키르기즈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영화는 키르기즈어와 우즈베크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다.¹⁰⁰

(4)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라디오 TWR-모나코, FEBC-싸이판은 키르기즈어로 매주 1.25시간을 방송하고 있다.¹⁰¹

(5) 잘랄아바드에서 활동하는 이단

이단으로는 ‘사타니스트(Satanist)’가 있는데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공격한다.¹⁰²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 기독교 인식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는 ‘러시아인의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다. 구 소련 시절 러시아인이 중앙아시아인들보다 상층권력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친근한 감정은 거의

⁹⁷ 본 내용은 A선교사(30대 초반, A소속, 오쉬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⁸ 본 내용은 A선교사(30대 초반, A단체소속, 오쉬지역 사역자)와의 7월 5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⁹⁹ 세계 기도 정보, www.krim.org/ow/index.htm

¹⁰⁰ 본 내용은 A선교사(30대 초반, A단체소속, 오쉬지역 사역자)와의 7월 5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¹⁰¹ 세계 기도 정보, www.krim.org/ow/index.htm

¹⁰² 본 내용은 P사역자(40대 초반, 잘랄아바드지역 사역자)와의 7월 12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없다. 개신교 역시 러시아 정교와 같은 종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¹⁰³

또한, 키르기즈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혼기에 가까운 여성에게서 특히 잘 확인되는데, 현지 한 자매의 경우,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혼기에 가까운 나이가 되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곳에서 기독교인인 자신을 반길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번 복음을 듣기도 어렵지만,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4) 요약

잘랄아바드에 교회가 들어온 지는 50년이 되었고 현재 5개의 교회가 있다. 종족언어로 된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많은 복음 성가들도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법 개정으로 전도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키르기즈스탄 교회의 3/4이 북부지역에 있는 것을 볼 때,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약하고 이슬람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잘랄아바드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는 있지만, 한국인 선교사는 아직 없다.¹⁰⁴ 이를 통해 남부지역에 선교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기독교는 러시아인의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고, 특히 샤머니즘 이슬람 전통이 강한 잘랄아바드에서는 아직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키르기즈스탄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개정된 종교법이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 이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한다.

¹⁰³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p. 392

¹⁰⁴ 본 내용은 D선교사(40대 초반, A단체 소속, 비취책사역자)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IV. 키르기즈스탄의 현재 이슈들

1. 대통령 선거, 바키예프 정권의 재집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족이나 종교적 정체성보다 더 강한 정치 사회적, 경제적 동원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씨족’¹⁰⁵ 정체성(clan identity)이다. 1995년 말 아카예프 대통령은 씨족 엘리트의 조언에 따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좌에 더 머물기로 하였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도시에 기반을 둔 빈약한 지식인 유권자 층의 지지를 포기하고, 자신과 아내의 씨족망 그리고 가까운 동맹 씨족들을 통하여 투표를 동원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씨족망 동원에 힘입어 아카예프 대통령은 1995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아카예프는 씨족 연계망을 동원한 대가로 자신의 친족들을 지역, 지방 정부의 장에 임명해야 했다.

지난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현 바키예프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키르기즈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바키예프 후보는 87.79%의 득표율을, 뒤를 이어 야당의 아마즈베크 이탐바예프 후보는 7.1%, 이외 6명의 후보는 각각 1.85%에서 0.3%의 득표율을 얻었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 정부가 개입하는 등 각종 부정 요소들이 저질러졌다고 선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바키예프 정권은 지난 8월 2일 취임식을 치르고 2기 임기 집권을 시작하였다. 이번 대선은 키르기즈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평일에 치러진 선거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전 아카예프 대통령 정권 시절 총리로 발탁되었으나, 2002년 남부에서 발생한 유혈 폭력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나서 야당을 이끌게 되었다. 그 후 바키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즈스탄의 민주화 운동이라 일컬어지는 ‘레몬 혁명’을 이끌어, 15년 동안 장기 집권에 온 아카예프 대통령을 축출하고 2005년 7월 조기 대선에서 현 정권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씨족 중심의 정치는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야당인 ‘아타메켄(AtaMeken)’ 당은 의회 선거에서 1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아카예프를 축출하고 등장한 바키예프 정권에서도 권력과 동맹, 유착한 씨족이 바뀌었을 뿐, 씨족정치로 인한 그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¹⁰⁶

¹⁰⁵ 친족을 기반으로 확장된 수평적, 수직적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¹⁰⁶ 강봉구,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Clan Politics) 키르기즈스탄의 사례”

2. 종교법 개정

2009년 겨울 1월, 키르기즈스탄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개정되었다. 종교법이 개정된 이유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 또한 종교의 자유나 특정 종교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아랍권과 서양의 정치적 압력과 같은 국제 관계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

종교법 개정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그 동안 이루어졌던 종교 시설의 등록을 전부 무효로 한다. 둘째,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을 가진 200명의 사람이 모여야 한다. 셋째, 종교 단체와 학교의 활동 기간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넷째, 설교자의 자격은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자에게만 부여된다. 다섯째, 헌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여섯째, 공공장소에 종교서적, 테이프, 비디오 등을 배포하는 것과 종교적 가정방문, 학교방문을 금한다. 또 이미 등록된 단체도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한다.¹⁰⁷ 이렇게 바뀐 종교법에 대하여 키르기즈스탄의 대표적 종교인 이슬람과 기독교의 반응은 상대적이다. 먼저 이슬람에서는 개정된 종교법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슬람 사원의 이맘들은 오히려 키르기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에 이슬람에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개정된 종교법 조항 중 여권¹⁰⁸을 소지한 200명 이상의 교인이 있어야 교회 혹은 모스크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슬람은 기도시간마다 약 500명 정도가 모여 중요한 행사나 예배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스크들은 약 5,000명 이상, 작은 모스크들도 1,000명 이상씩 모이기 때문에 모든 모스크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반면, 기독교에 미치는 타격은 굉장하다. 현지 교회들의 현지인 성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 성도 중에도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법 이전에 어렵게 등록을 받은 교회들이 전면 무효처리 되어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권을 소지한 성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의 불가능 하게 되었다.

2009년 7월, 키르기즈스탄은 대통령 선거 기간, 현 대통령의 유세를 위하여 종교법 시행을 잠시 중단하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 끝나면 활발히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교법이 시행되게 되면 유난히 엄격해진 등록조건들로 현지 교회에 개척될 교회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중보와 적절한 전략이 요구된다.

¹⁰⁷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¹⁰⁸ 키르기즈스탄에는 부족한 전산기술로 인해 혼신신고,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여권을(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같은 의미)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

V. 잘랄아바드 지역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5세기경,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평신도들이 중앙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1996년 11월, 아카예프 대통령도 키르기즈 지역에 기독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A.D.13~15세기 사이에 이미 이 지역에 전파되었다.”라며 초기 키르기즈스탄에 기독교가 존재했음을 언급했다. 러시아 침례교인들이 1880년에 처음으로 키르기즈 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했지만 키르기즈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2차세계대전 초기에 스탈린에 의해 불가강유역에 살던 현지 독일인들이 키르기즈 땅으로 강제 이송되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헌신된 크리스천이었고 이들은 결국 키르기즈에 독일 침례교회를 설립했다. 1990년경에는 그들에 의해 20여 명 가량의 키르기즈인 신자들이 생겼으며, 1990년 말에는 처음으로 서양에서 장기 선교사가 키르기즈스탄에 파송되었다. 곧이어 1991년부터 한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아시아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¹⁰⁹

잘랄아바드에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해는 1999년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선교사였다. 현지인 목회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으며 그로 인해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한국인 선교사들이 오기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추방당하여 다시 정착할 곳을 찾는 동안만 머물렀다고 한다.

2) 영적 상황

키르기즈스탄의 새로 개정된 종교법으로 말미암아 현지 크리스천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어떠한 강연이나 허락 없는 공연 및 일체의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현지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들의 활동 제약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은 긴장을 더하고 있다.

잘랄아바드는 남부 지역으로 북부 지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이슬람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역시 보수적인 무슬림들로서 기독교에 대한 반응 역시 차갑다. 이에 더하여 생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에도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으며, 외

¹⁰⁹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4권 1호 (2009년 봄)

국인 선교사 역시 극소수인 점에서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2. 잘랄아바드 지역 선교의 방해요소

1) 지역 외부적 방해요인

(1) 이슬람의 동진 운동

10/40창 지역에 속하는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핵심 지역인 중동과 지리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이슬람의 동진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무슬림들은 이곳에 더욱 많은 선교사와 순례자들을 보내고 있다. 기독교의 서진 운동과 충돌하는 이런 근본주의적 이슬람들의 세력 확장은 복음의 전파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Hut(Hizb-ut-Tahir)의 세력 확장

1999년부터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Hut(Hizb-ut-Tahir)라는 과격 이슬람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952년 중동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농촌지역의 사회불만세력을 대상으로 한 무장조직이다. 이들은 ‘말세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싸우며 그들을 죽이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인도, 세르비아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곧 범죄이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담은 전단을 인쇄하여 곳곳에 배부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의 우즈베크족,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크족, 타지키스탄의 우즈베크족 등은 거주 국가의 2급 시민 취급으로 인해 Hut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 미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정책

키르기즈스탄은 현재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국제 정치의 무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대서양동맹군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큰 규모의 군사 기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현재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마약, 빈곤, 난민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안보,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사회 전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아닌 군사원조에 우선순위를 둔 접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자국의 실리를 위한 목적적인 접근은 키르기즈스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권역 여러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2) 지역 내부적 방해요인

(1) 반 러시아적 경향과 기독교의 인식

19세기 중엽 카프카즈(Kavkaz) 전쟁을 종결시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정복에 나섰다. 19세기 말에 중앙아시아 거의 전역이 러시아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책은 기본적으로 불개입 방식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신비주의, 금욕주의가 주된 사상이며 절대자를 향한 진리 탐구와 잘못된 사회적 악에 대한 저항적 요소를 가진 민중 이슬람¹¹⁰이다. 이 민중 이슬람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경향성을 띄고 제정러시아에 대한 무장 항쟁을 시작했다. 이에 제정러시아는 민중 이슬람이 러시아가 지정한 ‘공식 이슬람’에 위배되고, 합법적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 행동으로 인식하여 민중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체형, 투옥, 유형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 저항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지도자인 무함마드 알리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의 추종자 546명이 처형을 당했다. 20세기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권력으로부터 무슬림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은 투르키스탄의 코칸트에서 독립을 선언하는데, 소비에트 정부는 코칸트를 공격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약 5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을 살육했다.¹¹¹

이처럼 중앙아시아인들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중앙아시아인에게 형성된 반 러시아 감정은 민중 이슬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치려는 현상과 러시아의 종교인 러시아 정교를 배척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정교는 기독교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동방정교회를 러시아식으로 바꾼 것인데, 중앙아시아 인들은 기독교와 러시아정교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2) 중앙아시아인의 정체성의 뿌리, 이슬람

중앙아시아의 민중 이슬람은 일반적으로 순응적,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민족의 관습 속에 일정한 기능을 보이면서 존재해 왔다. 민중 이슬람의 특징으로는 성묘 숭배와 성묘 방문이 있다. 제정러시아 시대의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북 카프카즈로부터 시작된 민중 이슬람의 저항요소가 중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민중 이슬람은 반 러시아적 경향으로 발전하여 러시아에 의해 핍박을 받는 동안 중앙아시아인들을 단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¹¹²

19세기 이후, “전 세계 무슬림이 한 사람의 칼리프를 추대하여 이슬람교 법에 따

¹¹⁰ 수피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상이슬람(Everyday Islam), 비공식 이슬람(Non Official Isla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출처: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 러시아 경향” (2007), p. 72)

¹¹¹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 러시아 경향” (2007), p. 74~75

¹¹²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 러시아 경향” (2007), p. 83

른 초국가적, 초민족적, 초지역적 통일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일어났다. 이란 출신 아프가니의 호소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은 민중 이슬람뿐 아니라 범 이슬람적 특징까지 가지게 되었고, 러시아와 서구 문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을 통하여 찾아가기 시작했다.¹¹³ 그 후, 1991년 독립 이후에 새롭게 이슬람 부흥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고 러시아에 예속되어 있을 때와 구별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기 위하여 민중 이슬람이 국민의 신앙적, 정신적 체제에서 단일성을 이끌어내기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¹¹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점점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 온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이슬람은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민중 이슬람을 종교로서만 보는 것으로는 중앙아시아 선교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3) 종교법 개정

2009년 1월, 키르기즈스탄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개정되었다. 새 종교법에 의하면, 정부의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해서 200명의 회원(성도)이 필요하며, 200명의 창립 회원들은 지역 행정 부처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의 종교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200명의 창립 회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은 새 종교법에서 대표적인 개악(改惡) 사례인데, 그 이유는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¹¹⁵

2009년 7월, 키르기즈스탄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어서 본 조사 팀은 종교법이 시행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바키예프 대통령이 재당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선거기간에 종교법 시행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그전에 잠시 교회에 미친 종교법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은 현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이전에 등록했던 교회 중 실제로 무효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다. 성도 중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많아 앞으로도 교회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로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될 시에는 모인 사람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개정된 종교법으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이슬람 미혼여성들의 인식

키르기즈스탄에는 여성 정치가가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

¹¹³ Ibid., p. 84

¹¹⁴ Ibid., p. 72

¹¹⁵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Forum 18 News, 파발마 638호 (2008년 11월 6일)

있지만, 주로 러시아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전히 이슬람사회에서의 타 민족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남성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결혼은 새로운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결혼의 중요성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하면, 대다수 사람이 이슬람인 중앙아시아 사회에서의 결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미혼 여성들의 개종에는 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1) 선교자 자녀 교육 문제

수도인 비쉬켄과 달리 그 외의 지역에는 선교자원이 부족한데, 특히 그 중 선교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예로 본 조사 팀이 일주일간 머물렀던 오쉬 지역에는 남부 지역 중 선교적 자원 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사가 한 명도 없어 선교사와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활 시설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의 부재 또한 선교사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2) 한국 선교계의 커뮤니티 부재(不在)

잘랄아바드는 교회의 지원과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다. 또한, 지역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와 자료 수집의 완성도도 낮은 편이다. 본 조사 팀의 방문 당시에는 현재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가 없었다. 아직 한국 선교계의 커뮤니티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한국인 선교사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3. 잘랄아바드 지역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혜요소들의 변화

기존에 잘랄아바드는 소도시로서 접근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이 개방되었고, 외국인들의 출입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출입도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랄아바드 복음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1) 교육

2007년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한국정부가 맺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많은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현지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오쉬와 나른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센터가 있지만 잘랄아바드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잘랄아바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쉬나 나른으로 유학을 간다. 잘랄아바드 지역의 대학교 내외에 한국어 센터를 세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한 복음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접촉점을 만들 수 있다. 잘랄아바드 뿐 아니라 키르기즈스탄 전체적으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들에게 컴퓨터 수리 기술이나 제빵기술, 미용기술 등을 가르쳐 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현지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운 현지인들은 크리스천으로 세워지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현지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면 현지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류열풍

한국문화가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조사 팀이 조사한 결과 특별히 한국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시장의 DVD 상점마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DVD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인 ‘대장금’, ‘주몽’, ‘불새’ 등은 물론이고 ‘미녀는 괴로워’와 같은 비교적 최신영화도 대부분이 시청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류열풍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았다. 본 조사 팀이 잘랄아바드를 다니는 동안 많은 이들이 호의를 베풀어주었는데, 그것은 조사 팀이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을 선교현장 가운데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성공사례

잘랄아바드 시에서는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그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현재 잘랄아바드 시에는 한국인 선교사는 없고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잘랄아바드 시와 상황이 비슷한 오쉬나 나른 지역에서는 더 다양한 선교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예로 키르기즈스탄의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한 한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기에

키르기즈스탄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¹¹⁶ 이에 따라 전문인 선교사들이 대학교 내에서 한국어 센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말씀 양육을 통해 제자양육 또한 담당하고 있다.

또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지에서 직접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미용기술이나 컴퓨터 수리기술을 교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나른에서 시행한 이 사역은 매우 큰 인기를 끌었고, 1기 출신의 수리반은 나른 시내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개업하였다고 한다.

4. 잘랄아바드 지역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잘랄아바드 시에는 선교 커뮤니티가 부재하여 장기사역자가 안정감을 갖고 사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까운 오쉬 시에는 비교적 한국인 선교사의 수도 많고 커뮤니티도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잘랄아바드 시 선교 전략으로 오쉬 시의 선교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비 거주 사역을 통한 현지 크리스천 리더 양육을 장기적인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고아와 장애인

키르기즈스탄에는 장애인과 고아가 많이 있지만,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¹¹⁷ 따라서 고아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세워 그들을 교육하고 돌보아 준다면 정부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US \$100이면 복지재단을 세울 수 있다.¹¹⁸ 복지재단에서는 키르기즈스탄 법이 인정하는 자격자들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에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시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아들을 교육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은 미용교육이나 자동차 정비 기술, 컴퓨터 교육 등이 있을 것이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닫힌 공간에서의 복음제시이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대학교 선교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교 선교 사역은 열린 공간에서 일대일 관계를 맺음으로 시행되는 복음 제시로 적발 등의 위

¹¹⁶ 고용허가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em), www.eps.go.kr

¹¹⁷ 본 내용은 시청통계관련 공무원과의 7월 9일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¹¹⁸ 본 내용은 키르기즈스탄 선교사의 2007년 11월 01일 기도편지를 참조하였다.

험과 선교사님들은 학교에서의 계약직의 위치에 있다는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음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

키르기즈스탄은 가부장적인 사회로 여성의 사회진출문제와 복지문제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그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지어서 현지사정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복지센터에서는 여성들 개개인을 상담해주는 일과 교육하는 일 등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한국어나 영어 등의 외국어를 교육하고, 쿼트와 같은 한국여성들의 여가문화를 전해주는 것 등을 제안한다.

(3) 남성

키르기즈스탄 나른의 한 선교사가 컴퓨터 수리점을 하여 그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고 한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을 교육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은 현재 자동차 수요가 많고 컴퓨터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선교적 관점에서의 지역통합

지역통합이란 특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국가들이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지역통합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개별 국가들이 더욱 광범한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아시아는 독립과 함께 자립적인 성장과 복잡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존립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중아시아 각국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유사성으로 지역통합을 통하여 효과적인 발전의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있다.¹¹⁹

따라서 이러한 지역통합의 개념에 기인하여 중아시아의 선교도 선교적인 지역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선교자원이 치우친 곳과 부족 혹은 부재한 곳과의 균형을 위하여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이 비슷한 지역끼리 통합하여 함께 사역해 나가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키르기즈스탄 내에서 남부지역의 여러 지역끼리의 통합을 설명할 수 있다. 비교적 선교자원이 발달한 나른이나 오쉬 지역과 선교자원이 부재한 잘랄아바드 시와의 통합을 통해 선교자원이 골고루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교 자원의 흐름

¹¹⁹ 김영진, “중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성, 전망” (2008)

에는 당장 어떠한 것이라기보다 지역 정보 및 선교 정보, 사역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2) 의료사역

현지 의료진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낙후된 의료 기기이다. 기술에 비해 낙후된 기기들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한 현지인이 발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음에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오히려 주술사에게 찾아가 신비스런 방법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였다. 병원 측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진 의료 기술을 보유한 각 나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교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구성된 의료계의 커뮤니티를 통해 선진 의료 기술과 장비들을 전달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을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

(3) 기타

현재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에 대하여 ‘안정자’로서 국제정치지역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타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부터 키르기즈스탄의 지역 정세가 안정되면 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지식과 선교의 사명을 의식을 가진 전문인 선교를 통해 사역을 펼칠 수 있다.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키르기즈스탄의 독립 당시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샤머니즘적 이슬람을 정착시켰다. 과거 유목민족으로서 종족 간의 유대감보다는 씨족으로서의 유대감이 더 강했기에 국가 차원의 민족의식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키르기즈스탄의 국민에게 이슬람은 곧 그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이 되었다. 이러한 이슬람정체성은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강하고, 보수적이며 잘랄아바드지역 사람들 역시 이러한 보수적인 무슬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특징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민족의식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교법의 개정과 종교법 시행 강화로 인하여 감시가 엄격해졌기에 더욱 신중하고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 이슬람과 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개종 후에 공동체로부터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이들과 친구가 되어 신뢰를 쌓은 후에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현지 성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다.

(2) 교회의 형태

키르기즈스탄 잘랄아바드 시에서의 교회는 가정교회 또는 비밀교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개종은 곧 공동체로부터의 핍박을 의미하고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 또 종교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공식적인 혹은 합법적인 교회의 등록이 어려워졌기 조용하고 적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²⁰

(3) 현지 지도자 양성

선교회와 현지 교회의 관계에는 네 가지 발전 단계가 있다. 1단계는 개척자(Pioneer) 단계로서 아직 신자가 없는 곳에서 개척 선교사가 사역을 담당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부모(Parent) 단계로서 아직은 어린 교회가 선교회와 성장기 자녀 관계에 놓여 있는 단계이다. 3단계는 협력자(Partner) 단계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참여자(Participant) 단계로서 완전히 성숙한 현지 교회가 지도력을 맡는 단계이다. 4단계에서는 선교회가 남아 있는 한 선교회는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한편, 이제는 다른 곳에서의 제1단계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¹ 결국, 현지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교사 중심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닌, 현지 리더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선교의 초점은 일대일 양육을 통한 제자 양육, 소그룹 형성, 교회(공동체)구축에 중심을 두고 현지의 발전과 개혁에 이바지하는 전인선교(Holistic Mission)와 일대일 제자양육(Discipleship)을 통한 자민족지도자와 현지교회 지도자를 세워 장기적인 선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¹²²

¹²⁰ 현지인 목회자(40대 후반, 남성)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¹²¹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 선교”

¹²² 최바울, “10/40창 Gateway People 접근 전략으로서의 전문인 선교”(1997)

V. 나가는 말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동진 운동과 기독교의 서진 운동이 충돌하는 거점지역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통로로서 기독교 서진 운동의 첫 발판이 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거센 이슬람의 바람에 의해 문이 좁아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남부지역이 강하고 보수적인 이슬람의 성향으로 선교적 돌파가 쉽지 않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 이슬람이 강한 페르가나 계곡에 접해있고 키르기즈스탄의 남부지역인 잘랄아바드 지역은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잘랄아바드 주의 대표도시인 잘랄아바드 시는 지금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그러한 성장에 발맞추어 점차 개방되고 있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잘랄아바드 시는 현재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장 및 개방화를 볼 때 이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종족과 지역에 복음이 더욱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잘랄아바드 시에는 현재 한국인 선교사가 없으며 극소수의 외국인 선교사만이 사역 중이다. 사역자 간의 커뮤니티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종교법 시행의 강화로 인해 은밀하게 사역하기 때문에 현지인 목회자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가까운 오쉬 시에 2008년 종교성이 내려와 종교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키르기즈스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할 때에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교보고책자를 내며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잘랄아바드 시가 알려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 어떠한 세력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또 한국 교계에서 이곳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자와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2009년 봄)
- 김영진,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성, 전망” (2008)
- 김미영,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지역대학원 지역학서사 학위논문』 (2003)
- 이상민,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2002)
- 이호령,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합의”, 전략연구 통권 제 38호 (2006)
- 잘랄아바드 시청, “잘랄아바드 정보 책자” (2008)
-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 러시아 경향”, 『학술진흥재단』 (2005)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키르기즈스탄 현황” (2006)
- 최한우, “10/40창 Gateway People 접근전략으로서 전문인선교” (1997)
- 최한우, “중앙아시아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제 5권 제 1호 (2001)
-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Forum 18 News, 파발마 638호 (2008년 11월 6일)

고용허가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 www.eps.go.kr

미션투데이, www.missiontoday.co.kr

세계지도정보, www.krim.org

월드맵(Worldmap), www.worldmap.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www.wikipedia.org

키르기즈스탄 정부 홈페이지, www.gov.kg

키르기즈스탄 한인 경제인 협회, www.kyrco.com

키르기즈스탄 여행정보 www.kyrgyzmission.com

CIA, www.cia.gov

XE, www.xe.com